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앤드류 맥고완(Andrew McGowan)의 『성경의 신적 호흡』(The...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부록. 바로 다음 부록이 M이므로 부록 L로 보인다. 739–775쪽 무렵. 서평 대상은 A. T. B. McGowan, *The Divine Spiration of Scripture*(2007)이다. 미국판 제목은 *The Divine Authenticity of Scripture*(2008)다.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맥고완을 친구로 소개한다. 그리고 맥고완의 책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며 비평한다. 앞부분의 쟁점에는 대체로 너그럽다. 성경론을 신학의 몇 번째 자리에 둘지, 영감·조명·명료성이라는 용어를 바꿀지 하는 문제다. 다만 용어를 바꿀 때마다 관심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 안의 변화'로 옮겨 간다고 경고한다. 핵심은 맥고완이 '무오성'을 버리고 '불오성'으로 바꾸자고 한 제안이다. 프레임은 네 가지를 보여 준다. 무오성은 문자주의가 아니라 '진실함'이라는 뜻이다. 무오성의 단서들은 일상 언어를 분석한 것일 뿐이다. 원본 개념은 디모데후서 3:16에 근거한다. 무오성은 합리주의적 추론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가르침이다. 이어서 맥고완식 '불오성'은 성경을 다른 책과 구별하지 못하며, 바빙크도 맥고완 편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결론은 이렇다. 하나님이 오류를 '숨 쉬어 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신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 절별 정리

📜 1. 들어가며 — 친구에게 주는 아픈 책망 (원문 서두)

프레임은 이 서평이 『성경론』 26장의 논의를 보충한다고 밝힌다. 맥고완은 개혁파 정통을 지키면서 앞을 내다보는 관점을 함께 품으려는 신학자다. 스코틀랜드 딩월의

맥고완의 책은 이른바 '샌드위치' 구조다. 앞(신학 순서, 용어)과 뒤(신앙고백서, 설교)는 논란이 적은 주제로 채웠다. 정작 어려운 가운데 부분에서 무오성을 불오성으로 바꾸려 한다.

1. 이 부록은 26장의 보충이다
2. 맥고완은 적이 아니라 친구다
3. 비판은 잠언의 '친구의 책망'이다
4. 책의 중심은 무오성 → 불오성 제안이다

> **잠언 27:6**
> 친구의 아픈 책망은 진실하다 → 비평의 태도를 정한다
>
>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 **잠언 27:17**
>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 논쟁은 서로를 세우는 일이다
>
>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 2. 백과사전 — 성경론은 신학의 몇 번째 자리에? (원문 1)

'백과사전'은 여기서 신학 주제를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는 문제를 뜻한다. 맥고완은 성경론을 맨 앞이 아니라 신론(하나님에 관한 교리) 다음에 두자고 한다. 성경론이 먼저 오면 하나님에게서 초점을 빼앗는다는 것이다. 또 성경이 성령의 일과 따로 떨어져 홀로 '확실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고 본다. 프레임은 이 질문이 조직신학 저술가 말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다. 다만 교리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하게 해 준다는 점은 가치 있다고 인정한다. 그는 순서가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의 문제라고 본다. 나쁜 성경론이 2장으로 옮겨 간다고 좋은 성경론이 되지는 않는다. 또 프레임이 읽은 성경론 가운데 영감·조명·설득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빼먹은 책은 하나도 없었다. 진짜 위험은

맥고완은 반틸을 따라, 우리의 확신이 성령에게서 오되 맹목적 신앙(근거 없이 그냥 믿는 태도)은 아니라고 말한다. 반틸의 '전제주의'는 하나님과 성경을 모든 생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변증 방법이다. 프레임은 맥고완이 반틸의 방법을 받아들인 것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면서 반틸이 무오성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반틸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했다. 성경 본문이 스스로 권위를 증언한다는 객관적 측면, 그리고 성령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주관적 측면이다. 반틸에게 성경 본문은 생각과 삶의 궁극적 기준이었다. 그렇다면 성경론을 맨 앞에 둘 타당한 근거도 있는 셈이다. 덧붙여 프레임 자신은 다른 책(*Salvation Belongs to the Lord*)에서 맥고완과 같은 순서를 택했다고 말한다. 신학적 필요 때문이 아니라 가르치기 좋아서였다.

1. 주제 순서는 신학보다 교육의 문제다
2. 성령을 뺀 성경론은 사실상 없다
3. 위험은 이론보다 '의지 없는 읽기'다
4. 반틸: 본문의 자증과 성령의 증거가 함께 간다
5. 성경이 궁극 기준이면 맨 앞도 정당하다

> **에스더 (책 전체)**
> 각주.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악한 책이 아니다 → '먼저 언급해야 중심'이라는 논리의 반례

> **출애굽기 1장**
> 각주. 첫 줄이 아니라 1장 뒷부분에서야 하나님이 처음 나온다 → 같은 반례
>
> [1]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2]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3]잇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4]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5]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칠십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6]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

3. 용어 ① '영감' 대신 '호흡' (원문 2-1)

'영감'은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일을 말한다. 맥고완은 이 말이 시인의 영감과 헷갈리기 쉽다고 본다. 또 하나님이 이미 있는 책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인상을 준다고 본다. 디모데후서 3:16의 '데오프뉴스토스'는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다. 뜻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어 내신'이다. 맥고완은 여기까지 워필드의 분석을 따른다. 그래서 '숨 내쉼'에 가까운 말을 쓰자고 한다. 그런데 영어의 expiration은 '죽음'도 뜻한다. 그래서 워필드의 다른 제안을 따라 '호흡'(spiration)을 택한다. 그는 디모데후서 3:16과 베드로후서 1:16-21을 묶어 이렇게 정의한다. 성령이 사람을 시켜 책을 쓰게 하셨고, 그 책은 참으로 사람의 작품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만 오해를 막으려면 권위가 성경 자체보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편이 낫다고 덧붙인다.

프레임은 용어 변경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교회가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차라리 '영감'의 뜻을 '데오프뉴스토스'에 맞추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도 옳다. 하나님을 떠난 성경에는 권위가 없다. 그러나 권위는 분명히 성경 '안에' 있다. 하나님은 권위 있는 말씀을 글로 주실 수 있고, 실제로 주셨다. 입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보다 더 권위 있다는 성경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반대다. 프레임은 맥고완이 디모데후서 3:16을 너무 빨리 지나쳐 인간 저자 이야기로 넘어간다고 비판한다. 인간 저자의 역할이 어떠하든 결과물인 '그라페'(기록된 글)는 하나님이 숨 쉬어 내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숨 쉬어 내셨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뜻이다. 그것이 전부다.

1. 데오프뉴스토스 = '하나님이 내쉬신'
2. 용어 변경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3. 권위는 하나님께, 그러나 성경 안에 있다
4. 기록된 말씀은 구두 말씀보다 못하지 않다
5. 숨 쉬어 내심 = 하나님이 말씀하심

> **디모데후서 3:16**
> 기록된 '성경'(그라페)이 하나님이 내쉬신 것 → 권위는 본문에 있다는 프레임 논증의 중심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맥고완이 인간 저자를 강조하려고 묶은 구절. 프레임은 인간의 역할이 실제임을 인정하되 3:16의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본다 (번역서 한 곳의 '베드로전서 1:19-21'은 베드로후서의 오기로 보임)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19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4. 용어 ② '조명' 대신 '인식' (원문 2-2)

'조명'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말한다. 맥고완은 이 말이 성경 쪽이 어두워서 빛이 필요하다는 인상을 준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인식'이라는 말을 쓰자고 한다. 그는 로마서·고린도후서·골로새서를 근거로 든다. 이 구절들은 죄가 우리의 생각까지 망가뜨렸다는 점(죄의 인지적 영향)을 말한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프레임은 이 점에 동의한다. 사실 신학 문헌은 조명을 '마음의 조명'으로 더 많이 쓴다고 보지만, '인식'이 덜 모호하다는 데도 동의한다. 다만 이 사건에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령은 말씀과 만나는 자리에서 일하신다. 본문 없이 성령의 도움만으로 '인식'이 생기지는 않는다. 본문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의 만남에 꼭 필요한 요소다.

프레임은 여기서 한 가지 패턴을 짚는다. 앞의 '호흡' 논의처럼 맥고완은 본문이 가진

성령의 호흡으로 생긴 성경의 성질이 성경을 성령이 쓰시기에 알맞은 도구로 만든다. 이 성질을 '조명'이라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 전통처럼 '기록된 말씀의 권능'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이 권능은 성령의 증거와 함께 일한다.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도 이 맥락에 들어온다.

1. 문제는 본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다
2. 그러나 성령은 본문 없이 일하지 않는다
3. 본문은 만남에 꼭 필요한 요소다
4. 본문의 성질 = 기록된 말씀의 권능
5. 권능은 성령의 증거와 함께 일한다

> **로마서 1장**
>
> 맥고완 인용.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막는다 →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
>
>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 택정함을 입었으니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 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

> **로마서 8:5-7**
>
> 맥고완 인용.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한다 → 죄의 인지적 영향
>
> 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 수도 없음이라

> **로마서 12:1-2**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린도후서 4:4

맥고완 인용.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 같은 논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맥고완 인용. 같은 논지의 보강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5]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

이사야 55:11

프레임 인용.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 본문 자체의 권능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로마서 1:16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 5. 용어 ③ '명료성' 대신 '이해' (원문 2-3)

'명료성'(번역서는 '명확성')은 성경, 특히 구원에 필요한 내용이 보통 사람도 알아들을 만큼 분명하다는 성질이다. 맥고완의 구분은 이렇다. 조명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보는' 일이라면, 명료성은 그 뜻을 '이해하는' 일이다. 그런데 명료성이라는 말은 성경을 순전히 인간적·자연적으로 읽으면 된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배우지 못한 신자도 복음을 알 수 있다는 전통의 관심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해가 본문 안에 들어 있는 무엇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임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 프레임은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는 인격적 방식에 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본문의 성질을 빼고는 이 일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명료성이라는 말은 적어도 우리 눈을 본문으로 향하게 한다. '이해'로 바꾸면 논의가 우리 안의 변화로만 쏠려 주관적이 된다.

프레임의 요점은 성령이 분명한 메시지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성령도 필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려 주는 객관적 말씀도 필요하다. 또 명료성을 말한다고 성경 읽기가 '순전히 인간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프레임은 맥고완 말고 누가 그런 뜻으로 쓴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어떤 인간 지식도 '순전히' 인간적이지 않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 계시가 비뚤어지는 것은 우리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 계시 자체는 객관적으로 분명하다. 각주에서 프레임은 '명확성'(perspicuity)이 '명료성'(clarity)이라는 짧은 말을 굳이 길게 쓴 단어일 뿐이라고 꼬집는다.

1. 명료성은 눈을 본문으로 향하게 한다
2. '이해'로 바꾸면 논의가 주관화된다
3. 성령은 분명한 메시지를 증언하신다
4. 계시의 왜곡은 우리 책임이다

📜 6. 무오성 ① 정의 없이 비판하기, 무오와 불오의 뜻 (원문 3 앞부분)

'무오성'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참이고 틀린 것이 없다는 성질이다. 맥고완은 이 말을 '불오성'으로 바꾸자고 한다. 이것이 사실상 그의 책의 중심이다(48–164쪽). 프레임은 맥고완이 역사 서술에 너무 많은 지면을 쓴다고 아쉬워한다. 역사로 신학 입장을 증명하려 하면 '발생론적 오류'에 빠진다. 어떤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로 그 생각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잘못이다. 더 큰 문제는 맥고완이 무오성을 한 번도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무오성이 오류 없는 사본에 성경의 권위를 기대는, 전문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전환이라고만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비판이다. 내용도 부정확하다. 무오론자에게 성경 권위의 기초는 원본이 아니라 영감(호흡)이다. 또 맥고완은 블로쉬를 인용한다. 블로쉬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무오하지만 역사·과학 사실에 다 맞는다는 뜻이라면 무오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런데 맥고완은 이 구분을 받아들이는지 분명히 하지 않는다. 그는 오르에게도 공감한다. 오르는 무오성을 '세부 사항의 엄밀한 문자성'으로 정의한 뒤 거부했다. 프레임은 그런 정의를 쓴 무오론자는 없다고 말한다. 무오성은 문자주의가 아니라 '진실함'에 관한 말이다.

프레임은 사전으로 돌아간다. 무오는 '오류나 거짓이 없음'이다. 그는 차라리 전문 용어를 버리고 그냥 '참되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은 성경에서 쉽게 확인된다. 그런데도 '진리'라는 말을 피하게 된 이유가 있다. 신학자들이 진리를 그리스도·궁극적 실재·윤리 같은 더 고상한 뜻으로만 쓰려 했고, 단순한 '명제적 진리'(어떤 진술이 사실에 맞음)를 낮춰 봤기 때문이다. 상대주의까지 끼어들었다. '불오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5절과 9절에 쓰인 더 오래된 말이다. 사전대로라면 불오가 무오보다 강하다. 무오는 '오류가 없다'(실제)이고, 불오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가능성)이다. 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서법적' 표현이라 부른다. 맥고완의 유사 정의는 이렇다. 최종 권위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이며, 성령이 그 말씀을 실패 없이 사용해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신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류를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는가? 아니라면 불오성과 무오성은 구별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전의 불오 개념과 맞지 않는다.

1. 맥고완은 무오성을 정의하지 않는다

3. 무오성 ≠ 문자주의, 무오성 = 진실함
4. 사전상 불오(있을 수 없음)가 더 강하다
5. '하나님도 오류를 말씀하시나?'가 관건이다

시편 19:9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다 →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는 직접 근거

>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시편 119:160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다 → 같은 근거

>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요한복음 17:17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 같은 근거

>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4:6

'진리'의 그리스도론적 의미의 예 → 신학자들이 선호한 '고상한 진리'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8:2

'참 장막' → 형이상학적(궁극적 실재) 의미의 진리

>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요한일서 1:6

'진리를 행하지 않음' → 윤리적 의미의 진리

>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 7. 무오성 ② 역사 개관과 학계의 세 반론 (원문 3 중간)

프레임은 맥고완의 역사 서술을 짧게 요약한다. 칸트에게서 계몽주의·합리주의·경험주의가 하나로 모였다. 각주에서 프레임은 맥고완이 흄의 회의주의를 과장하고 칸트의 현상계를 잘못 설명했다고 지적한다. 자유주의 신학은 칸트를 따라 초자연적 개입을 배제했다. 그리고 계시를 '하나님 의식'이나 가치 판단(리츨)으로 다시 해석했다. 트뢸치는 세계 종교 가운데 성경이 특별하다는 데 의문을 품었다. 바튼 같은 학자는 성경을 다른 인간 책과 똑같이 다뤘다. 신정통주의 쪽의 레이드는 무오주의가 교회사에 새로 등장한 입장이며 '성경 우상숭배'라고 보았다. 칼빈도 축자영감이나 무오성을 믿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맥고완 스스로 각주에서 멀러가 이 견해를 효과적으로 반박했다고 인정한다. 프레임은 토렌스 논의가 전체 주장에 무엇을 보태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또 반틸이 불신자에게 '접촉점'이 없다고 했다는 맥고완의 설명은 부정확하다고 지적한다. 반틸은 불신자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으나 그것을 억누른다고 했다. 미국 근본주의, 워필드와 하지, 헨리와 카넬, 로저스·맥킴과 우드브리지의 논쟁, '스코틀랜드 상식 실재론'의 영향 논쟁에 대해서는 맥고완의 서술이 대체로 정확하다고 평가한다.

맥고완은 '시카고 선언'을 신적 구술(하나님이 받아쓰게 하셨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본문 비평을 받아들이며 다듬어진 고백으로 본다. 시카고 선언은 1978년 무렵 복음주의 학자들이 무오성을 정리한 문서로 알려져 있다. 이어 맥고완은 학자들이 무오성에 반대하는 세 가지 흔한 이유를 소개한다. 첫째, 무오성을 믿는 것이 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평적 패러다임'이다. 맥고완은 이것이 계몽주의 전제에 기댄 것이라며 거부한다. 둘째, 교리·윤리에는 오류가 없지만 역사·과학에는 원본에서도 오류가 있다는 구분이다. 맥고완은 내용과 형식을 그렇게 가르기 어렵다며 이것도 거부한다. 셋째, '무오성'이라는 말이 최근에 생겼고 신학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맥고완은 셋 가운데 이것만 받아들인다. 그래서 프레임은 묻는다. 맥고완에게 무오성은 어떤 점에서 '신학적으로' 잘못되었는가? 다음 네 절이

1. 역사로 참·거짓을 가리면 발생론적 오류다
2. 레이드의 칼빈 해석은 멀러가 반박했다
3. 반틸도 불신자의 '억눌린 지식'을 인정했다
4. 맥고완은 교리/과학 이분법을 거부한다
5. 그가 받아들인 반론은 '신학적 오류'뿐이다

📜 8. 무오성 ③ "단서가 너무 많다" (원문 3-1)

맥고완은 무오성이 쓸모 있으려면 단서가 너무 많이 붙는다고 비판한다. 시카고 선언이 그 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 군대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도 무오성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 맥고완은 묻는다. 숫자가 틀려도 오류가 아니라면 오류는 대체 언제 오류인가? 어떤 반론이든 다 '허용되는 예외'로 처리될 것 같다는 것이다. 프레임은 기본으로 돌아가 '성경은 참되다'는 직관에서 출발하자고 한다. 진리와 정확성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같지 않다. 얼마나 정확해야 참인지는 맥락에 따라 다르다. 수학에서 6+5=10은 오류다. 그러나 누가 나이를 물으면 우리는 지난 생일 기준으로 답한다. 몇 초까지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나친 정보는 소통을 방해한다. 398쪽짜리 책을 '400쪽'이라고 답해도 참이다. 오히려 책 크기의 인상을 더 정확히 전한다. 오류를 알아보려면 언어와 문화의 맥락을 알아야 한다. 성경은 대부분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일상 언어다. 현대 과학 장르도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려고 어림수·은유·과장·비유를 쓰신다. 이것들도 진리를 전하며, 오류라 부를 근거가 없다.

두 번째 단서는 성경이 오류 있는 자료를 인용해도 무오성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프레임은 이 단서가 무오론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라고 인정한다. 그는 성경 저자가 정경 밖 글을 인용하고 활용할 때 대부분 그 내용을 참이라고 주장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 단서로 무오성을 변호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맥고완에게 동의한다. 그러나 '역사적 권위'와 '규범적 권위'의 구분은 다른 문제다. 역사적 권위는 '실제로 그렇게 말해졌고 일어났다'는 뜻이다. 규범적 권위는 '그렇게 믿고 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성경에는 사실로 기록되었지만 따르라고 준 것이 아닌 말이 많다. 뱀의 말, 라멕의 복수 노래, 어리석은 자의 말, 바벨론 왕의 교만이

표현을 정말 믿으라고 쓴 것인지 묻는 것은 정당하다. 우리도 천동설을 믿게 할 생각 없이 '해가 뜬다'고 말한다. 결국 이 단서들은 인간이 일상 언어로 참되게 소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한 것일 뿐이다. 우리가 늘 남의 말을 평가할 때 쓰는 기준이기도 하다.

1. 진리 ≠ 정확성, 기준은 맥락이 정한다
2. 400쪽이라 답해도 거짓이 아니다
3.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닌 일상 언어다
4. '오류 자료 인용' 단서는 프레임도 반대한다
5. 역사적/규범적 권위 구분은 정당하다

> **창세기 3:1-5**
>
> 뱀의 거짓말 → 사실로 기록되었으나 믿으라고 준 말은 아님(역사적 권위만)
>
> 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 **창세기 4:23-24**
>
> 라멕의 복수 노래 → 같은 예
>
> 23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씰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 **시편 14:1**
>
>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의 말 → 같은 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사야 14:13-14

바벨론 왕의 교만한 말 → 같은 예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고린도전서 11:1

바울을 본받으라 → 규범적 권위가 있는 행동의 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2:5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 같은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데살로니가후서 2:2

각주. 바울이 위조 편지를 언급 → 인용이 참이라는 주장이 아닌 드문 예외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 9. 무오성 ④ "원본은 없지 않은가" (원문 3-2)

'원본'(자필본)은 성경 저자가 처음 기록해 원래 독자에게 전해진 문서를 말한다. 무오론자들은 원본만 완전히 무오하다고 말해 왔다. 사본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모두 인정한다. 맹구와은 묻는다. 무오성이 그렇게 중요하면 왜 하나님은 원본이나 정확한

있나? 원본이란 또 무엇인가? 신명기 마지막 장의 모세 죽음 기사는 모세가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편집과 첨가는 어떻게 되나? 프레임은 네 가지로 답한다.

첫째, 근거는 성경이다. 디모데후서 3:16은 하나님이 내쉬신 '문서'가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생긴 본문은 완전히 참되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은 분명한 원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본도 완벽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모세는 사람들이 말씀에 더하고 뺄 것을 내다봤다. 좋은 사본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어떤 사본이 100% 무오하냐'고 따지면 답은 원본이다. 둘째, 원본이 무엇인지는 좋은 질문이다. 영감된 책은 원래 청중에게 '진짜'임을 확인받아야 했다. 모세의 돌판과 율법책은 언약궤 곁에 놓였다. 바울은 친필 서명과 동역자들로 편지를 확인시켰다. 시가서처럼 확인 과정을 알기 어려운 책도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시킨 어떤 사건이나 과정은 있었을 것이다. 원본은 '원래 독자에게 진짜로 확인된 원래 문서'다. 하나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한 자료를 가리키는 말이지, 구멍 난 신학을 가리는 핑계가 아니다.

셋째, 왜 보존하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실 의무도 없으시다. 다만 프레임은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추측을 내놓는다. 이 질문은 더 큰 질문의 일부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즉시 완전한 이해를 주지 않으셨는가? 그랬다면 서로 가르칠 일도, 선교 여행도, 신학 연구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기를 원하셨다. 부모는 자녀를, 목사는 성도를, 학자는 목회자를 가르친다. 이것을 '언약적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성문 헌법이 나라를 다스리듯 기록된 본문이 언약 공동체를 다스린다. 그 뜻을 밝히는 것은 공동체의 일이다. 신적 본문이 어디서 끝나고 인간의 '영유'(받아 내 것으로 삼는 과정)가 어디서 시작될지는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본이나 완벽한 번역을 주실 수도 있었다. 실제로는 오류 없는 원본을 주시고, 거기서부터 인간의 영유가 시작되게 하셨다. 모든 사본에 영감을 주시고 번역은 사람에게 맡기는 쪽은 상상하기 쉽고, 원본만 영감하시는 쪽은 어렵다고 할 이유가 없다. 이 반론은 계시에서 인간 요소를 다 없애야 한다는 가정이 있어야만 성립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다.

넷째, 원본의 무오를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오류 있는 본문을 영감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을 오류의 주인으로 만드는 셈이다. 맥고완은 '하나님의 진실성이 걸려 있다'는 반센의 말을 인용하고도 이 점을

말씀이라 부르는 것은 옳다. 그 탁월함은 원본의 영감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원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1. 근거: 디모데후서 3:16의 '숨 쉬어 낸 문서'
2. 원본 = 원 독자에게 확인된 원래 문서
3. 사본·번역은 섭리 아래 공동체에 맡기셨다
4. 말씀을 아는 일은 언약적·공동체적이다
5. 사본 차이는 핵심 교리를 흔들지 않는다

> **디모데후서 3:16**
> 호흡은 저자만이 아니라 '본문'에 적용된다 → 완전히 참된 원본이 있었다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출애굽기 31:18**
>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 → 누구도 의심 못 할 원본의 예
>
>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 **신명기 4:2**
>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 사본 변질의 가능성을 미리 내다봄
>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 **신명기 12:32**
> 같은 경고 → 권위는 필사자의 변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본문에 있다 (번역서 본문의 '12:3'은 각주대로 12:32가 맞음)
>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각주. 바리새인이 전통으로 말씀에 더함 → '가감'의 또 다른 방식

6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7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신명기 31:24-26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둠 → 원본이 원 청중에게 확인된 방식

24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25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6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17

바울의 친필 서명 → 서신이 진짜임을 확인한 방식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 10. 무오성 ⑤ 본문의 난제들 (원문 3-3)

맥고완은 무오론자들이 성경의 모순을 만나면 두 가지로 빠져나간다고 비판한다. '겉보기 모순일 뿐'이라거나 '원본에는 없는 필사 오류'라고 한다는 것이다. 프레임은 맥고완이 세 번째 길을 무시한다고 답한다. 문제를 잠시 보류하고 답 찾기를 미루는 길이다. 우리가 모든 난제에 답할 의무는 없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난제를 다 풀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본문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증언하시기 때문이다. 맥고완도 자기 견해를 위해 성령과 말씀에 호소한다. 그런데 무오론자가 같은 일을 하면 왜 반대하는가? 물론 그리스도인은 난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받은 은사대로 풀려고 힘써야 한다. 프레임은 맥고완이 부정한 두 해결책이 정당한 경우도 많다고 본다. “짐을 서로 지라”와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겉보기에만 충돌한다. 또 현재 본문의 어떤 문제는 실제로 필사 과정에서 생긴 변질 때문이다.

이 전략은 무오론자만이 아니라 책임 있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쓴다. 쓰지 말라는 것은 모든 겉보기 모순을 실제 모순으로 받거나, 본문 비평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라는 말이다. 그건 비합리적이다. 물론 두 방법 모두 남용될 수 있다. 억지 조화는 안 된다. 증거 없이 필사 오류를 들먹이면 무지의 도피처가 된다. 때로는 답하지 않고 두는 편이 낫다. 특정한 조화를 교리처럼 고집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러나 더 많은 정보가 생기면 풀릴 가능성이 늘 있으므로, 오류가 있다고 교리처럼 단정하는 것도 똑같이 잘못이다. 각주에서 프레임은 두 가지를 덧붙인다. 무오론자가 모순을 '겉보기'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이상해 보이는 것은 처음부터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가정할 때뿐이다. 또 오류를 '증명'하려면 '어떤 해결책도 있을 수 없다'는 부정 명제를 증명해야 한다. 맥고완도 137쪽에서 이 점을 인정한다.

1. 난제를 보류하는 것도 정당한 길이다
2.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과 성령의 증언이다
3. 겉보기 모순과 필사 변질은 실제로 있다
4. 억지 조화도, 오류 단정도 잘못이다
5. 오류 증명은 부정 명제 증명이라 어렵다

> **갈라디아서 6:2**
> “짐을 서로 지라” → 6:5와 겉보기에 충돌하는 예
>
>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 **갈라디아서 6:5**
> “각각 자기 짐을 지라” → 실제 모순이 아닌 겉보기 모순의 예
>
>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성경 무오주의는 모든 외관상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기초하지 않는다.”

맥고완이 가장 근본적이라고 여기는 주장이다. 무오론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하나님이 오류 없는 원본만 내쉬실 수 있다고 근거 없이 가정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오류 없는 원본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다만 그것 말고는 못 하신다는 생각은 거부한다. 무오성은 성경이 직접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라 다른 교리에서 끌어낸 추론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전제가 하지와 워필드 같은 합리주의적 신학자들에게서 왔다고 본다. 프레임은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을 든다. 성경에서 정당하고 필연적으로 끌어낸 결론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 그러니 '추론'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비판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무오성은 단순한 추론이 아니다. 무오성은 '진리'의 다른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다. 하지가 과학과 신학의 비유를 지나치게 밀고 나갔다는 지적에는 프레임도 동의한다. 성경 언어의 다른 기능(부름, 도전, 격려)보다 명제적 성격만 강조했다는 지적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하지가 성경을 '우리가 소유하고 조종하는 차가운 실험물'로 만들었다는 말은 지나치다. 각주에서 프레임은 이 표현이 변증법적 신학자들의 말이며 복음주의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한다. 성경을 조종하려는 것은 마음의 죄이며, 어떤 성경론을 가졌든 누구나 지을 수 있다. 오히려 무오주의는 우리를 말씀 '아래' 두기에 그런 죄를 막는다.

맥고완의 긍정적 설명은 이렇다. 성령이 사람을 도구로 성경을 영감하셨다. 결과물은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로 하셨기에 인간적 측면을 지우지 않으셨다. 원본도 난제와 모순을 가진 지금의 사본과 매우 비슷했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도 묻는다. 하나님이 오류 있는 설교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면 성경이라고 왜 안 되겠는가? 프레임은 여기서 맥고완의 중심 논지를 이렇게 읽는다. 하나님이 진리뿐 아니라 오류도 숨 쉬어 내실 수 있고, 실제로 그러셨다. 그리고 여덟 가지로 철저히 반대한다.

1. 숨 쉬어 내심은 말하심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신다.

2. 무오성은 추론의 산물이 아니라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다.

3. 무오성은 하나님이 무엇을 못 하시는지에 대한 인간의 판단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의 판단과 하나님 자신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4. 하나님은 설교·가르침·노래·드라마처럼 오류 있는 수단으로도 소통하신다. 각주에 따르면 별과 들판 같은 일반계시로도 소통하신다. 그러나 신자들은 늘 성경을

5. 원본에 오류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쉬신 본문' 같은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6. 그렇다면 성경을 설교나 다른 섭리적 소통보다 높은 최고 권위로 볼 이유가 사라진다.

7. 기록된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생각은 디모데후서 3:16뿐 아니라 많은 성경 자료와 어긋난다. 신명기에 기록된 율례의 권위, 시편의 말씀 찬양, 예수님과 사도들의 구약 인용 방식, 사도들이 자기 글에 둔 권위가 그 예다.

8. 맥고완은 종교/세속 내용을 나누지 않으니 로저스·맥킴보다 보수적이라 여긴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종교적 내용은 무오하다고 믿는다. 맥고완에게는 교리 영역에서조차 무오성이 없다.

1. 바른 추론도 성경의 권위를 가진다(WCF 1.6)
2. 무오성 = 성경이 참되다는 직접 가르침
3. 하나님 자신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4. 설교는 쓰이지만 성경이 설교의 기준이다
5. 맥고완에겐 교리 영역의 무오성도 없다

> **디도서 1:2**
>
>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 하나님은 오류를 '말씀'하실 수 없다
>
>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 **히브리서 4:12**
>
> 번역서 표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의 근거로 인용됨 (내용상 히브리서 6:18과 더 맞닿아 보임 — 원서 확인 필요)
>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시편 19:7-11

기록된 율법의 완전함과 확실함을 찬양 → 기록된 말씀의 신뢰성

7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편 119편

시편 전체가 기록된 말씀을 찬양 → 같은 근거

시편 119장 1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2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4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6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

고린도전서 14:37

바울이 자기 글을 '주의 명령'이라 주장 → 사도적 기록의 권위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하나님이 오류에 숨을 불어넣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류를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것이다.”

📜 12. 불오성 — 맥고완의 대안은 성경을 구별해 주는가 (원문 4)

맥고완은 '불오성'을 더 오래되고 더 나은, 성경을 높이는 방식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프레임이 보기에 그는 끝내 불오성을 정의하지 않는다. 앞에서 본 사전적 의미도 따르지 않는다. 그가 내놓은 논증(49쪽)을 다시 보자. 앞의 논의를 감안하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는 하나님이 오류를 말씀하시는 경우도 들어갈 수 있다. 또 성령이 말씀을 실패 없이 쓰셔서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말은 옳다. 하지만 성령은 '모든 것'을 그렇게 쓰신다. 결국 이 정의는 성경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평범한 섭리의 하나로 만든다. 프레임은 예를 든다. 그는 반틸의 『기독교 변증학』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본다. 성령은 그 책도 실패 없이 쓰신다. 그러면 반틸의 책도 불오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맥고완의 정의는 성경과 다른 책을 구별하지 못한다. 프레임은 같은 비판을 바르트, 몰트만, 벌카워, 라이트, 엔즈에게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맥고완은 이들보다 '높은' 성경론을 자처하기에 더 실망스럽다.

맥고완은 벌카워, 로저스·맥킴, 옛 프린스턴을 비판한다. 그리고 자기 입장이 오르와 바빙크에 가깝다고 말한다. 프레임은 오르를 끌어들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한다. 맥고완은 오르의 내용/형식 구분에도, '영감의 정도'라는 견해에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르에게서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연역해 성경의 성격을 미리 정하면 안 된다는 생각 정도다. 그러나 무오주의는 연역이 아니다. 성경이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하는 말에 근거한다. 맥고완의 진짜 영웅은 바빙크다. 그는 바빙크의 일곱 특징을 든다. 자연신학은 거부하되 일반계시는 인정함, 말씀과 사실의 유기적 관계, 신적·인간적 저자, 성령의 증거 강조, 계시라는 넓은 맥락 속의 영감, 저자의 인간적 특성을 다 쓰시는 '유기적 영감', 영감이 교리·윤리에 국한되지 않음이다. 프레임은 이 가운데 무오론자가 반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 바빙크가 하나님이 오류를 말씀하실 수 있다거나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 맥고완은 바빙크가 '교회에 약속된 성령의 인도도 인간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인용한다. 그러나 그 문맥은 성경 영감이 아니라 교회의 교리 형성에 관한 것이다. 프레임은 이것을 '끔찍한 오해'라고 부른다. 바빙크가 무오성이나 원본/사본 구분을 직접 다루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그가 미국 논쟁을 모르는 네덜란드 맥락에서 네덜란드어로 썼기 때문이다.

프레임은 바빙크가 무오주의를 반박한 글을 알지 못한다. 엔즈 논쟁에서 나온 '성육신 유비'는 자신과 맥고완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며 건너뛴다(부록 J 참고).

1. 맥고완은 불오성을 정의하지 않는다
2. 성령은 모든 것을 '실패 없이' 쓰신다
3. 그 정의로는 반틸의 책과 성경이 같아진다
4. 맥고완이 든 바빙크 특징은 무오론과 충돌 없다
5. 바빙크 인용은 교회 교리 형성에 관한 말이다

📜 13. 성경과 신앙고백서 (원문 5)

프레임은 이 주제가 덜 논쟁적이며 대부분 동의한다고 말한다. 맥고완은 세 부류를 반대한다. '오직 성경'을 내세워 신앙고백서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앙고백 서약 방식의 모호함을 이용해 개혁신학의 기본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신앙고백서를 성경과 동등하게 만드는 '강한 고백주의'도 있다. 그리고 성경과 전통의 관계를 더 섬세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레임이 걸린 것은 책 끝의 바르트 인용 하나다. 바르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과 확신에 관심을 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전 신조 전통과 결별했고, 개혁신학을 '인간학'으로 바꾸려 했다는 것이다. 맥고완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주장을 진지하게 성찰할 만하다고 했다. 프레임은 신앙고백서도 오류가 없거나 모든 것의 최종 답은 아니라고 분명히 한다. 그러면서도 바르트의 말은 터무니없고 진지한 성찰감이 아니라고 단호히 답한다.

1. 신앙고백서는 성경 아래, 그러나 소중하다
2. 반고백주의·모호한 서약·강한 고백주의 모두 경계
3. 고백서도 무오하지 않다고 프레임도 인정
4. 바르트의 'WCF = 인간학' 주장은 거부

맥고완은 앞에서 설교를 '오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예로 썼다. 책 끝에서는 성경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교리적이며 사람들의 필요에 적용하는 설교를 권한다. 프레임은 반대하기 어렵다고 짧게 평한다. 각주에서 그는 제2차 스위스 신앙고백 1장의 '하나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문장을 해석한다. 이것은 설교가 영감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성경이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 고백서는 설교자가 악한 사람이어도 선포된 말씀은 참되고 선하다고 말한다. 설교는 성경의 권위에 기대는 것이지, 성경과 같은 급이 아니다.

1. 성경 기반·교리적·적용 설교에 동의
2. 설교는 영감된 말씀이 아니다
3. 설교의 권위는 전하는 성경에서 온다

📜 15. 결론 —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신다 (원문 7)

맥고완은 자기 입장에 나올 법한 세 반론에 답하며 책을 마친다. 프레임은 앞의 두 가지는 이미 다뤘다고 한다. 첫 번째 반론에 대한 맥고완의 답은 당혹스럽다고 한다. 반론은 이것이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성경 말을 어떻게 믿나?” 맥고완은 이 질문이 부적절하다고 답한다. 자신은 무오성에 반대할 뿐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속이지 않으시니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 프레임은 되묻는다. 하나님이 오류를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신다는 결론을 어떻게 피하겠는가? 이 한 문장에 맥고완의 '신적 호흡' 이해의 문제가 다 들어 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속이지도 속지도 않으신다.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며 그래서 참되다. 프레임은 맥고완에게 하나님이 성경 '본문'을 내쉬셨다는 사실에 더 주목하라고 권한다. 그가 보기에 맥고완은 본문을 다른 인간 책처럼 다룬다. 호흡이 성경을 참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여기는 셈이다. 프레임은 본문의 성격에 대한 무관심이 최근 복음주의의 유행이라고 진단한다. 라이트의 『마지막 말씀』과 엔즈의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 영감설』에도 같은 결함이 있다고 본다.

1. 맥고완: 무오성 거부 ≠ 오류성 주장

3. 하나님은 속이지도 속지도 않으신다
4. 맥고완은 본문을 인간 책처럼 다룬다
5. 같은 결함이 라이트·엔즈에게도 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감 / 호흡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일이다. '호흡'은 하나님이 말씀을 '숨 쉬어 내셨다'는 원어의 뜻을 살린 말이다.

데오프뉴스토스
디모데후서 3:16에만 나오는 헬라어로, '하나님이 숨을 내쉬어 내신'이라는 뜻이다.

조명
성령이 죄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을 밝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맥고완은 '인식'으로 부르자고 한다.

명료성(명확성)
성경, 특히 구원에 필요한 내용이 보통 사람도 알아들을 만큼 분명하다는 성질이다.

무오성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참이며 틀린 것이 없다는 성질이다. 프레임은 이것을 '진실함'의 다른 말로 본다.

불오성
사전적으로는 '오류가 있을 수 없음'으로 무오보다 강한 말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 말을 쓴다. 맥고완은 더 약한 뜻으로 쓴다.

서법적 표현
'실제로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없다'를 말하는 표현이다. 불오(있을 수

원본(자필본)
성경 저자가 처음 기록해 원래 독자에게 진짜로 확인된 문서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사본이다.

역사적 권위 / 규범적 권위
역사적 권위는 '실제로 그렇게 말해지고 일어났다'는 권위다. 규범적 권위는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권위다.

죄의 인지적 영향
죄가 감정과 의지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아는 능력까지 비틀었다는 가르침이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하나님이 성경을 '숨 쉬어 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말씀하셨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시므로 성경은 참되다.
- 무오성은 문자주의나 과학적 정밀성이 아니라 '진실함'이다. 그 단서들은 일상 언어로 참되게 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한 것이다.
- 원본 무오는 디모데후서 3:16에 근거한다. 사본과 번역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공동체에 맡기신 영역이다.
- 성령의 일은 언제나 본문과 함께 간다. 본문의 고유한 성질(권능·명료성·진실함)을 지우면 성경은 다른 좋은 책과 구별되지 않는다.
- 하나님이 오류를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신다'는 고백을 지킬 수 없다.

📖 이 장을 쓰는 법

- 성경론 9편 ·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다 · 영감 교리의 역사와 비평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